

부모통제 · 학교관여 · 교우관계가 청소년 사이버폭력 가해 경험에 미치는 영향 연구: 사이버폭력에 대한 태도의 매개효과

김봉섭*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연구위원)

본 연구는 청소년 사이에 '사회적 죽음'으로 인식되는 사이버폭력과 관련해서 사이버폭력 가해 경험에 대한 부모, 학교, 친구 등의 영향력을 확인하고자 한다. 부모, 학교, 친구 등 사회통제 그룹이 청소년 온라인 행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에 근거하여 이들 그룹이 사이버폭력 가해 경험과의 관계에서도 실제로 영향력을 발휘하는지 규명하려는 것이다. 실효성 있는 사이버폭력 예방과 대책 마련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매년 실시하는 <사이버폭력 실태조사>의 2020년 결과 자료를 활용하여 2차 분석을 진행했다. 한국교육개발원 학교 통계자료를 기반으로 교급, 지역, 학년별로 층화계층추출방식을 통해 전국 17개 시도의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생까지 총 4,958명을 대상으로 분석했다. 분석 결과, 청소년들은 사이버폭력 예방을 위한 학교의 관여도가 낮고, 교우관계가 원만하지 않은 경우 사이버폭력 가해 경험이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자녀의 디지털 이용에 대한 부모 통제는 직접적으로 사이버폭력 가해 경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사이버폭력에 대한 태도는 사이버폭력 가해 경험에 대해 부모 통제의 영향력을 전달하는 역할과 함께 학교 관여, 교우관계 등의 영향을 매개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결과에 따라, 향후 사이버폭력 예방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는 학교와 친구의 개입 방안뿐만 아니라 사이버폭력에 대한 부정적이고 비관용적인 태도를 함양하기 위한 방안을 포함해야 함을 밝혔다.

주제어 : 청소년, 사이버폭력, 부모통제, 학교관여, 교우관계, 사이버폭력 태도

* bada@nia.or.kr

1. 서론

노르웨이 출신 유명 사회학자인 요한 갈통(Johan Galtung)은 “인간의 자기실현을 방해하는 모든 요소”를 폭력이라 했다. 신체 손상이나 정신적·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물리적 강제력만을 폭력으로 규정하는 사회 통념을 넘어서는 정의다. 이러한 갈통의 정의에 따르면 사이버공간에서 문자, 이미지, 영상 등 상징적인 언어를 통해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도 폭력의 일종이다. 사이버폭력은 신체적 상흔이나 물리적 피해를 야기하지는 않지만, 심리적·정서적 위해를 통해 타인의 자율성과 권리를 침해하여 자기실현을 방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사이버폭력은 정보통신기기·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서 등장하기 시작한 문제적 행동 유형이다. 여기서 사이버폭력은 “전자적 수단을 이용하여 개인 또는 집단이 무력한 개인에게 행하는 공격적이고 의도적이며 반복적인 행위(Smith et al, 2008)”를 의미한다. 정보통신기기나 서비스를 이용해서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목적으로 타인 비방, 욕설, 배척, 스토킹, 신상정보 유출, 갈취 등의 행위를 반복적으로 행하는 것을 사이버폭력이라 할 수 있다.

청소년 사이버폭력은 일상의 모든 활동이 온라인으로 대체되고 온라인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특정 지역, 특정 학교, 특정 학년만의 문제가 아닌 보편적인 현상이 되었다. 실제로 지난 2021년 1월 발표된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9년 1차 조사와 비교해서 2020년 조사에서는 학교폭력에서 사이버폭력이 차지하는 비중이 다른 폭력 유형들에 비해 가장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교육부 보도자료, 2021. 1. 21). 또한, 2020년 사이버폭력 실태조사에서는 10명 중 2명 이상의 청소년이 사이버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확인됐다(한

국정보화진흥원, 2020). 이러한 사이버폭력 현상은 청소년 인터넷 이용률이 99.9%에 이르고, 스마트폰 이용률도 99.1%에 달할 정도(한국정보화진흥원, 2020)로 대부분의 청소년이 정보통신기기·서비스를 이용하는 상황에서 온라인 교육의 확대 등으로 인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사이버폭력은 신체적 상흔이나 물리적 피해를 야기하진 않지만 다양한 심리적, 정신적 문제를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이버폭력 피해자들에게서 높은 수준의 정신적 고통(Juvonen & Gross, 2008), 사회적 불안(Juvonen & Gross, 2008), 낮은 자존감(Kazter et al, 2009), 우울감(Ybarra et al, 2005) 등이 나타났다. 이외에도 당혹감, 죄책감, 고독감, 분노, 슬픔, 대인관계 문제 등을 경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Fisher et al, 2016; Hinduja & Patchin, 2007; Kowalski et al, 2008; Shariff, 2009). 심지어 사이버폭력을 경험하지 않은 청소년들에 비해 사이버폭력 피해자들에게서 2.23배 더 많은 자살 충동이 일어나는 것으로 조사됐다(Kaplan, 2014). 사이버폭력 가해자들도 다양한 문제를 겪는 것은 마찬가지다. 사이버폭력 가해자들은 음주나 약물남용, 학교생활 및 교우관계 부적응, 신체적·성적 남용, 태만 및 공격적 행동 등과 같은 신체적·행위적 부작용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okunaga, 2010; Samara et al, 2017). 이들은 사이버공간에서 타인을 공격하는 동안 죄의식, 수치심, 그리고 후회 등에 대한 인식 수준도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Cross et al, 2015; Rapheal, 2018). 심지어, 10~16세 사이의 청소년 사이버폭력 가해자 중 일부에서는 자살 충동을 경험하거나 자살을 시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Hinduja & Patchin, 2010). 장기적으로는 사이버폭력을 경험한 가·피해 청소년 모두 균형 잡히지 않은 정서와 낮은 학업 성취로 인해 불안하고 안정적이지 못한 미래가 선택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청소년 사이버폭력의 실태, 원인, 그리고 폐해 등을 확

인하려는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져 왔다. 주로 개인과 사회적 요인에 초점을 맞춰 사이버폭력 가·피해 경험과의 관련성을 규명한 연구들이었다. 반면, 청소년의 가치관 형성과 행동 발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부모, 학교, 교우관계에 대해서는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을 뿐 그 자체로 사이버폭력과의 관계를 밝힌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했다(이지연 등, 2015; Buelga et al, 2017). 특히, 사이버폭력과 관련해서 부모 역할이나 부모·자녀 관계에 대한 연구(예를 들어, 이승출 등, 2021; 이지혜 등, 2019)에 비해 교우관계 및 학교·교사의 역할이나 관여 활동과의 관계를 규명한 연구는 거의 전무하다.

청소년 사이버폭력의 대책도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선도를 위한 사후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 예방 교육은 사이버폭력 당사자인 가해자와 피해자에게만 치우쳐 있다. 사이버폭력의 다양한 요인들을 포괄적으로 다루지 못하고 당사자 위주의 대책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고 할 수 있다(이지연 등, 2015). 주로 개인적 차원에서 사이버폭력과의 관계를 찾은 결과다. 이러한 현실은 사이버폭력 예방에 대한 실효성있는 효과를 거두기 어렵게 한다. 따라서 사이버폭력 예방을 위해서는 청소년의 가치관 형성과 행동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요인 즉, 부모, 학교, 친구 등의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먼저 부모, 학교, 교우관계와 사이버폭력에 대한 인식 및 사이버폭력과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확인하는 절차가 선행되어야 한다. 과학적 근거를 통해 실행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효과적일 뿐 아니라 효율적이며 적절한 정책 수립 방향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주로 의존했던 개인 특성에서 벗어나 부모, 학교, 친구 요인이 사이버폭력에 대한 태도 및 사이버폭력 가해 경험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청소년 발달과정에서 부모와 학교, 친구 같은 일상적인 사회통제 그룹은 청소년의 온라인 행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는 기존 주장(Warr,

1993)에 근거하여 사이버폭력과 관계에서도 이들 그룹의 영향력이 실제로 발현되는지를 규명하려는 것이다. 이들 사회통제 그룹의 역할이 사이버폭력에 대한 태도라는 특정 가치에 미치는 효과도 확인하고자 한다. 특히, 사이버폭력 가해 가능성을 줄이는 요인들이 무엇인지를 실증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도 있다. 이를 통해 청소년 사이에 ‘사회적 죽음’으로 인식되는 사이버폭력에 대한 억제 요인으로 부모, 학교, 친구 등의 영향력을 확인하여 사이버폭력 예방과 대책 마련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논의 및 연구문제

1) 청소년 사이버폭력 특징

청소년 사이에 신체적 폭력 문제를 최초로 제기한 이는 유타계 독일인 하이네만(Heinemann, 1969)이다. 그는 자신의 학창시절 경험을 토대로 청소년 간에 발생하는 폭력을 ‘모빙(mobbing)’으로 규정했다. 당시 오스트리아 동물행동연구자인 콘라트 로렌츠(Konrad Lorenz)가 같은 무리의 동물 집단에서 특정 개체를 공격하는 행위를 ‘모빙(mobbing)’이라 칭했던 것에서 착안했다. 특정 동물의 무리에서 발생하는 폭력처럼, 청소년 사이에서도 같은 현상이 목격되었다는 것이다. 이때 모빙은 청소년 집단 내에서 신체적·외형적으로 다른 대상을 목표로 삼아 폭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이해됐다.

이후, 노르웨이의 올웨우스(Olweus, 1973)가 모빙 현상을 규명하기 위해 조사한 결과, 청소년 간의 폭력은 단순히 신체적·외형적 차이 때문이 아니라 의도성·반복성·힘의 불균형적인 요소에 의한 것임

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올웨우스(Olweus)는 청소년 간의 폭력을 ‘불링(bullying)’으로 규정했고 현재에 이르고 있다. 2000년대 중반 이후에는 정보통신기술 및 서비스의 대중화로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이용한 사이버폭력이 등장했다. 이러한, 사이버폭력은 전통적인 면대면 폭력(bullying)과 비교해서 타인에게 해를 가할 목적으로서의 의도성과 행위의 반복적인 특성은 동일하지만, 힘의 불균형¹⁾ 상태는 불명확하며, 정보통신기기나 서비스를 폭력의 도구로 사용한다는 점에서는 구분된다(김봉섭, 2021).

사이버폭력은 정보통신기기 및 서비스의 익명성, 무경계성, 평등성, 감시 부재 등으로 인해 면대면 폭력과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Antoniadou & Kokkinos, 2015; Mishna et al, 2012). 사이버폭력은 익명성으로 인해 피해자는 가해자를 특정하기 어렵고, 가해자는 피해 확인이 불가능해 폭력의 수위가 더 높아지는 경우가 있다. 무경계적인 특성으로 가정과 학교 구분없이 24시간 내내 사이버폭력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 평등성으로 인해 신체적, 사회적 힘과 지위가 작동하지 않아 누구나 쉽게 사이버폭력을 행할 수 있는 특징도 있다. 마지막으로 정보통신기기 및 서비스 이용에 대한 부모나 학교의 감시 부재로 인해, 사이버폭력의 발생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과 크게 사회문제화된 이후에서야 인지하게 되는 특징이 있다.

사이버폭력은 폭력 행위 종류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욕설(flaming), 사이버모욕(harassment), 명예훼손(denigration), 신분사칭

1) 전통적인 면대면 폭력에서는 신체적·사회적 차이가 힘의 불균형으로 나타났으나 비대면적이고 익명적 특성을 지닌 사이버공간에서는 힘의 불균형이 명확하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들어 사이버공간에서의 힘의 불균형은 디지털 기술을 이용하는 역량의 차이로 인해 나타난다는 주장(예를 들어 Görzig & Machackova, 2015; Slonje, Smith, & Frisen, 2013)을 수용하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다.

(impersonation), 폭로(outing), 협잡(trickery), 따돌림(exclusion) 그리고 사이버스토킹(cyberstalking) 등으로 분류한다(Moor, 2011; Willard, 2007). 반면, 파친과 힌두자(Patchin & Hinduja, 2010)는 사이버폭력을 괴롭힘과 협박, 위협, 비방, 허가받지 않은 정보 유포로 간단하게 구분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승현 등(2015)과 한국정보화진흥원(2016)이 사이버폭력 유형화 연구를 통해 사이버폭력의 행동 유형을 분류했다. 이승현 등(2015)은 사이버폭력을 사이버비방, 사이버감옥과 스토킹, 이미지 도용 및 신상털기, 사이버갈취 및 명령, 사이버성폭력, 이미지블링, 플레이밍, 사이버배제 등 8개 유형으로 나누었다. 한국정보화진흥원(2016)에서는 사이버언어폭력, 사이버명예훼손, 사이버따돌림, 사이버성폭력, 사이버스토킹, 사이버갈취, 신상정보 유출, 사이버강요 등 총 8개 유형을 사이버폭력의 하위 유형으로 제시하고 있다.

2) 부모, 학교, 교우관계와 사이버폭력

브론펜브뢰너(Bronfenbrenner, 1979)는 청소년의 가치관 형성과 행동 발달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의 체계를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에 따라 구분했다. 그는, 청소년의 가치관 형성과 행동 발달에 가장 큰 영향 요인으로 개인을 둘러싼 주변 인물 즉, 부모, 교사, 친구 등을 꼽았다. 그에 따르면, 개인은 부모, 교사, 친구 등과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발달하며 이들과의 상호작용은 개인의 발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해했다. 따라서 청소년 행동 발달과 가치관의 부정적 형태인 사이버폭력과 관련해서도 부모, 교사, 친구의 영향력을 확인하는 것은 매우 의미있고 중요한 작업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먼저, 청소년 사이버폭력과 부모 역할과의 관계에서 온라인 활동에 대한 부모 모니터링이 적은

청소년일수록 인터넷 괴롭힘(Internet Harassment) 가해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Ybarra & Mitchell, 2004). 또한, 사이버폭력 피해 경험과 인터넷 이용에 대한 부모 통제는 부적인 관계가 있음이 밝혀졌다(Aoyama et al, 2012). 특히, 자녀의 인터넷 이용 제한, 차단 프로그램 설치 등과 같은 부모의 정보통신서비스 이용 통제 노력은 자녀의 사이버폭력 피해를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정에서 자녀가 이용할 수 있는 웹사이트를 정한 규칙의 존재는 사이버폭력 가해 경험을 줄이는 것으로 확인됐다(Mesch, 2009). 이처럼, 청소년 사이버폭력 가·피해 경험에 대해 부모의 복합적인 활동들은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면대면 폭력과 달리 사이버폭력은 학교 밖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고, 학교생활이나 교사 지지 등과 같은 학교 요인과의 관련성이 약해 부모가 이를 대신해 사이버폭력과 밀접하게 관계를 맺기 때문에 풀이된다(Kokkinos et al., 2016). 하지만, 국내에서는 자녀의 사이버폭력 경험과 부모 역할과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한 노력이 상당히 부족하다. 오히려 일부 연구에서는 부모·자녀와의 관계 등(부모강압, 부모갈등, 부모애착) 가정 요인의 영향력이 사이버 집단괴롭힘에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전신현·이성식, 2010). 우리나라 청소년을 대상으로 사이버폭력 가해 경험에 대한 부모 역할을 명확히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

학교는 가정과 함께 청소년의 특정 행동 발달과 가치관 형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학교 환경은 청소년 폭력 행위에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지목된다(김경은·은혜미, 2012). 실제로, 교사와 학생들 간에 연대감, 명확한 규칙, 상호 존중, 우호적인 관계 형성 같은 요인들은 위협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는 강력한 요인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Cernkovich & Giordano, 1992; Rensick et al., 1993) 긍정적인 환경에서의 적절한 메시지 공유는 폭력을 줄이는데 매우 유용한 것으로 나타났다(Battistich et al., 1995, 1997). 사이버폭력과 관련해서

도 학교에 대한 소속감을 느끼고, 학교 분위기가 신뢰, 공정, 유쾌하다고 인식하는 청소년일수록 사이버폭력을 적게 경험하는 것으로 밝혀졌다(William & Guerra, 2007). 학교 내에서 인터넷 이용과 관련한 규칙의 존재도 사이버폭력 피해를 줄이는 것으로 확인됐다(Mesch, 2009). 하지만, 많은 학교들이 면대면 폭력에 대한 정책은 있지만 사이버폭력과 관련해서는 대체로 대응 방안이나 언급에 있어 매우 소극적이다(Smith, Kupferberg et al., 2012). 실제로 18.4%의 학교만이 반사이버불링 정책과 관련한 공식적인 문서를 갖고 있다고 보고되었다(Vandebosch et al., 2014). 우리나라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사이버폭력이 발생하는 사이버공간의 경우 학교 영향에서 자유로워 학교 환경이 사이버폭력에 실제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반불링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교인 경우 학교폭력 가해가 20~23%, 학교폭력 피해가 17~20%까지 줄었다는 연구결과(Farrington & Trofi, 2009)로 볼 때 학교 환경은 사이버폭력과의 관계에서도 매우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사이버폭력을 줄이기 위한 학교의 다양한 활동 효과를 실증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교우관계와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사회통제/유대이론을 근거로 원만한 친구 관계가 형성되어 있을 경우 관계 훼손의 두려움 때문에 비행 행위에 가담할 확률이 낮아지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또래 관계가 안정적인 경우 행복 수준이 높고 생활 만족도도 높으며(Ma & Huebner, 2008), 또래의 지지가 높을수록 불안과 위축, 미성숙한 행동과 같은 부적응 문제가 감소한다는 것(유안진 · 한미현, 1996)이다. 이를 근거로 사이버폭력과 관련해서도 친구 관계가 원만할수록 가해행위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청소년기에 매우 중요한 준거집단인 교우관계와 사이버폭력과의 관계를 규명한 연구는 매우 부족하다. 중학생을 대상으로 또래 간에 신뢰, 의사

소통, 소외 등 또래 환경 요인과 사이버 언어폭력을 포함한 사이버 비행 간의 관계를 규명한 연구에서는 오히려 또래 환경 요인이 사이버 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박혜숙 등, 2014). 청소년기에 접어들면서 부모 영향에서 벗어나 또래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진다고 하는데 청소년 사이에 발생하는 사이버폭력에 대한 이해의 폭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교우관계의 역할을 명확하게 규명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3) 사이버폭력에 대한 태도와 사이버폭력 피해 경험

특정 행위에 대한 개인의 평가는 그 행위를 설명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제시되어 왔다. 여기서 특정 행위에 대한 개인의 평가를 의미하는 태도는 개인이 사람이나 사물뿐만 아니라, 특정 이슈 등을 포함한 대상에 대해 ‘옳다, 옳지 않다’, ‘좋다, 나쁘다’, ‘바람직하다, 바람직하지 않다’ 등 긍정적 또는 부정적으로 내리는 정서적인 평가를 의미한다. 대상에 대해 갖는 긍정적 혹은 부정적 평가(Eagly & Chaiken, 1993)이자 특정 행위에 대한 개인의 전반적인 정서적 평가가 태도인 것이다. 따라서 개인이 어떤 행동에 대한 호의적 또는 비호의적 평가를 통해 그 행동이 자신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면 태도는 호의적일 것이며, 행동 실행에 대한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그 행동을 취하게 될 확률이 높다고 할 수 있다(김봉섭, 2021).

이처럼 특정 행위에 대한 개인의 평가는 특정 행위를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다. 실제로 반두라 등(Bandura et al, 1996)에 따르면, 개인적인 도덕 기준에 반하는 행동에 대해 우호적인 인식을 보이는 사람들은 훨씬 더 공격적인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갈등 해결의 손쉬운 방법으로 폭력을 수용하는 사람이 폭력의 가해자가 되기 쉽다고도 한다(김경은 등, 2012). 이러한 주장은 사이버폭력

과 관련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 이고운 · 정세훈(2014)은 청소년 사이버 언어폭력 역시 그 행위가 자신에게 만족스럽고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긍정적 태도를 가질 경우 실제 폭력 행동으로 이어진다고 주장했다. 또한, 코왈스키 등(Kowalski et al., 2014)이 수행한 메타분석 결과를 보면 공격과 도덕적 일탈에 대한 규범적인 신념은 사이버폭력 가해 경험과 관련 있음이 밝혀졌다. 특히, 폭력을 용인하는 정도 즉, 폭력에 대한 호의적인 태도가 사이버폭력을 활성화하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이 확인됐다(황지영, 2008; 김경은 · 윤혜미, 2012).

이와 관련하여, 김경은 등(2012)은 익명성이 전제되어 비교적 표현이 자유로운 공간인 사이버공간에서는 사이버폭력에 대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높은 청소년이 타인에 대한 괴롭힘을 크게 지각하지 못하거나 가벼운 정도로 생각할 수 있어 평소 폭력에 대한 내적 태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이는 청소년이 폭력에 허용적일수록 사이버 상에서 언어폭력을 많이 한다고 밝힌 연구들(이성식, 2005; 2007; 황지영, 2008; Williams & Guerra, 2007)과 일치하는 주장이다. 사이버 상에서는 사회적 현실감 부족으로 인해 평소의 내적 태도보다 더 부정적으로 작동하여 사이버폭력 가해 경험을 높이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이버폭력에 대한 청소년들의 인식과 평가는 사이버폭력의 실제 행위를 설명하는 중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다.

한편, 특정 행동에 대한 태도는 독립적으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로부터 학습을 통해 어떤 대상에 대해 일정한 태도를 갖는 것(이성식 · 전신현, 2020)으로 알려진다. 이와 관련해서 반두라(Bandura, 1977)는 관찰학습(observation) 혹은 모델링(modeling)이란 개념을 통해 다른 사람의 행동을 관찰함으로써 특정한 태도를 갖게 된다고 강조했다. 주변인들의 존재가 태도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

다. 실제로, 부모나 교사들이 자녀나 학생들에게 명확하게 폭력 행위는 적절하지 않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경우 청소년들은 훨씬 낮은 비율로 사이버폭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Hinduja & Patchin, 2012). 부모나 교사의 메시지가 청소년들에게 사이버폭력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형성케 했기 때문이다. 주변 친구들의 폭력 행동이나 비행 등을 관찰함으로써 자신도 폭력적인 행동을 용인하는 태도를 갖게 되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다(Durant et al., 1996).

하지만, 아직까지 사이버폭력이라는 특정 행동에 대한 태도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서는 규명 노력이 전무하다. 응답자의 46.8%가 사이버폭력을 “재미”로 한다고 응답(Jisha P. R., 2020)하여 청소년 대부분이 사이버폭력에 대한 도덕적 기준이나 평가가 상당히 관대한 수준임에도 사이버폭력에 대한 태도를 형성케 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관련 연구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이버폭력에 대한 특정 태도의 결과로 사이버폭력과 관계를 규명하는 것만큼 사이버폭력에 대한 태도 형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노력 그리고 이러한 모든 요인들의 관계를 복합적으로 살펴보는 노력 등이 중요한 연구주제가 되어야 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사이버폭력 가해 경험과 자녀의 디지털 이용에 대한 부모 통제, 사이버폭력 예방을 위한 학교의 관여 활동, 교우관계 등과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한다. 아울러 폭력에 대한 개인의 태도가 얼마나 허용적인가가 폭력적 행동의 실행에 매우 중요한 요소라는 주장(김경은·윤혜미, 2012)에 근거하여 사이버폭력 가해 경험과 사이버폭력에 대한 태도와의 관계도 살펴보고자 한다. 이에 따라 먼저 부모, 학교, 친구, 사이버폭력 태도 요인이 청소년 사이버폭력 가해 경험과 어떠한 관계를 맺는 지를 확인하기 위해 이들 요인이 사이버폭력 가해 경험 집단과 무경험 집단 간

에 차이가 있는 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에 따라 [연구문제 1]를 다음과 같이 설정했다.

[연구문제 1] 사이버폭력 가해경험 집단과 사이버폭력 가해 무경험 집단 간에 부모 통제, 학교 관여, 교우관계 및 사이버폭력에 대한 태도는 차이가 있는가?

두 번째는 부모, 학교, 친구, 사이버폭력에 대한 태도 중 어떤 요인이 사이버폭력 가해 경험과 관련이 깊은 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이는 한정된 자원으로 사이버폭력 예방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보다 효과적인 정책 대상이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어떤 요인이 사이버폭력 가해 경험에 영향력이 높은 지를 확인한다면 확인된 요인에 집중적인 예방정책을 투입함으로써 사이버폭력 가해 경험을 줄이는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연구문제 2]를 다음과 같이 설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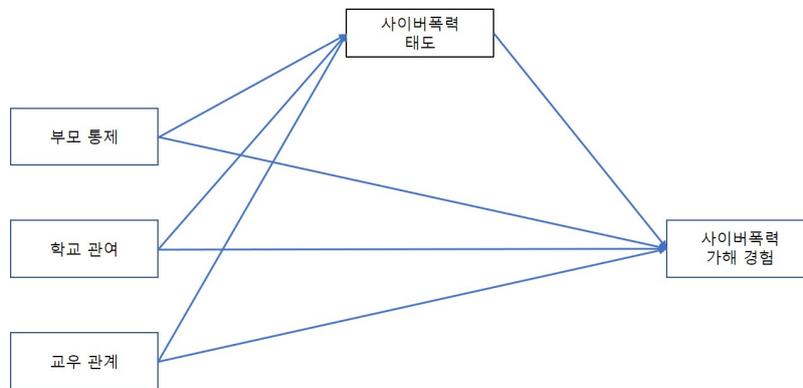
[연구문제 2] 부모 통제, 학교 관여, 교우관계 및 사이버폭력에 대한 태도와 사이버폭력 가해 행동과의 관계는 어떠한가?

지금까지 사이버폭력 경험과 관련해서 사이버폭력에 대한 태도의 영향력을 규명한 연구는 일부 있었다(예를 들어, 김경은·윤혜미, 2012). 하지만, 태도는 독립적으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학습과 사회적 환경에 의해 형성된다고 볼 때 사이버폭력에 대한 태도 역시 복합적인 규명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이를 위해, 부모, 학교, 친구 등의 요인이 청소년의 가치관 형성에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주장에 따라 이들 요인과 사이버폭력에 대한 태도 형성과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이지연 등(2015)의 연구에 따르면 부모의 양육

태도는 사이버폭력과의 관계에서 직접적인 영향 요인이기 보다는 심리적 요인이 매개하여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학교와 교우관계 또한 사이버폭력과의 관계에서 이러한 관계가 존재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청소년의 사회적 발달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부모, 학교, 교우관계와 사이버폭력에 대한 태도, 그리고 사이버폭력 피해 경험과의 관계를 복합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아래와 같이 [연구문제 3]을 설정했다.

[연구문제 3] 부모 통제, 학교 관여, 교우관계가 청소년의 사이버폭력 피해 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사이버폭력에 대한 태도에 의해 매개되는가?

지금까지 제시된 본 연구에서 규명하고자 하는 연구문제를 도식화하면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연구모형

3. 연구방법

1) 분석 대상

본 연구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2020년 수행한 「2020년 사이버폭력 실태조사」의 데이터를 분석 자료로 활용했다. 「2020년 사이버폭력 실태조사」는 전국의 일반 성인 및 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했으나,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사이버폭력 경험과 관련있는 변수들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한 것이기에 학생 대상의 데이터만을 사용했다. 조사 대상 선발을 위해서는 한국교육개발원 학교 통계자료를 기반으로 전국 17개 시·도의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생까지 교급, 지역, 학년별로 층화계층추출방식을 적용했다. 자료수집은 학교 리스트 추출, 조사 대상 학교 선정 및 사전 전화 안내, 선정 학교 대상 공문, 설문 및 설문 안내서 발송, 온라인 설문 및 집계, 최종 자료 검증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조사에 응한 응답자는 총 4,958명이었다.

2) 주요 변수

(1) 사이버폭력 피해 경험

본 연구에서는 사이버 언어폭력, 사이버 명예훼손, 사이버 스토킹, 사이버 성폭력, 신상정보 유출, 사이버 따돌림, 사이버 갈취, 사이버 강요 등 한국정보화진흥원(2016)이 제시한 총 8가지 사이버폭력 하위 유형에 대해 타인에게 행했던 경험 여부를 사이버폭력 피해 경험으로 측정했다. 이는 미터와 바우만(Meter & Bauman, 2018)을 포함한 여러 연구자들이 사이버폭력 피해 경험을 측정하는 방식과 동일하다. 응답자들은 각각의 사이버폭력 유형에 대해 최근 1년 동안의 피해

경험 여부를 “전혀 없음”(1점)에서 “거의 매일”(5점) 등 5점 척도에 대해 해당하는 사항에 표시하도록 했다. 따라서, 사이버폭력 가해 경험은 개인별로 최저 8점에서 최고 40점 사이에 분포하며 최저점에 가까울수록 사이버폭력 가해 경험이 적은 것이며, 최고점에 가까울수록 사이버폭력 가해 경험이 많은 것으로 했다. 응답자들의 사이버폭력 가해 경험 평균은 8.22점(표준편차=1.173)이었다. 척도의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한 신뢰도 분석 결과 신뢰도지수(Cronbach's)는 0.802였다.

(2) 자녀의 디지털 이용에 대한 부모 통제

자녀의 디지털 이용에 대한 부모 통제 요인은 자녀의 정보통신기기 및 서비스 이용에 대한 부모의 통제 정도를 의미한다. 미터와 바우만(Meter & Bauman, 2018)은 청소년 사이버폭력 연구에서 부모 모니터링(Parental monitoring)을 인터넷 이용 시간 지정, 방문 가능 사이트 제한, 컴퓨터 차단 프로그램 설치, 올바른 정보통신기기 사용법 지도 등 4가지 항목으로 측정했다. 본 연구에서도 미터와 바우만(Meter & Bauman)이 사용한 측정 도구를 활용하여 자녀의 정보통신기기 및 서비스 이용을 통제하는 정도에 대해 총 4가지 항목의 질문에 답하도록 했다. 응답자들에게 부모님께서서는 “내 컴퓨터/스마트폰에 유해 콘텐츠 차단 앱 또는 인터넷 사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모니터링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나 앱을 설치해 둔다”, “나에게 사용하면 안 되는 사이트나 프로그램, 앱에 대해 알려준 적이 있다”, “온라인에서 개인 정보보호 및 관리에 대해 알려준 적이 있다”, “나의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정해 둔다” 등 4가지 항목에 대해 각각 “그렇지 않다”(0점)와 “그렇다”(1점) 중 해당 사항에 표시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본 연구에서는 개별 문항에서 ‘그렇다’로 응답한 개수를 합해 자녀의 디지털 이용에 대한 부모 통제 정도를 측정했다. 따라서 4개 항목에 대해 ‘그렇다’를 응답한 개수가 ‘0’인 경우는 부모의 디지털

털 통제가 전혀 없는 것을 의미하며, '4'는 매우 심한 경우를 뜻한다. 응답자의 부모 통제 정도 평균은 1.24점(표준편차=1.145)이었다.

(3) 사이버폭력 예방을 위한 학교 관여

본 연구에서는 사이버폭력 예방을 위한 학교 관여를 “사이버폭력 예방을 위해 청소년의 정보통신기기나 서비스 이용이나 태도 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고자 하는 학교와 교사의 공식적이고 의도적인 행위”로 정의한다. 이에 따라 사이버폭력 예방을 위한 학교 관여 활동을 “우리 학교에는 사이버폭력과 관련된 규칙이 있다”, “우리 학교는 수업시간에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 “우리 학교 선생님들은 평소 사이버폭력에 대해 자주 이야기한다”, “우리 학교는 사이버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등 총 4개 항목에 대해 “그렇지 않다”(0점)와 “그렇다”(1점) 중 해당 사항에 표시하도록 했다. 본 연구에서는 개별 문항에서 ‘그렇다’로 응답한 개수를 합해 사이버폭력 예방을 위한 학교 관여 정도를 측정했다. 따라서 4개 항목에 대해 ‘그렇다’를 응답한 개수가 ‘0’인 경우는 사이버폭력 예방을 위한 학교 관여가 전혀 없는 것을 의미하며, ‘4’는 매우 높은 경우를 뜻한다. 사이버폭력 예방을 위한 학교 관여 정도의 평균은 2.07점(표준편차=1.194)이었다.

(4) 교우관계

교우관계는 청소년들 사이에 또래 집단과의 인간관계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교우관계를 “내 친구들은 나와 이야기를 나눌 때 서로 생각이 달라도 존중해 준다”, “내 친구들은 내가 말하는 것에 관심을 갖고 들어 준다”, “나는 내 친구들에게 내 고민과 문제에 대해 이야기한다” 등 총 3개의 항목으로 측정했다. 각 항목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1점)와 “매우 그렇다”(4점) 등 4점 척도로 측정한 결과

교우관계에 대한 응답자들의 평균은 9.65점(표준편차=1.949)이었다. 척도의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한 신뢰도 분석 결과 신뢰도지수(Cronbach's)는 0.853이었다.

(5) 사이버폭력에 대한 태도

사이버폭력에 대한 태도는 “사이버폭력 행위에 대해 개인들이 갖는 특정한 태도”라고 정의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이버폭력에 대한 태도를 응답자들이 사이버폭력을 문제 행위로 인식하는 정도로 측정했다. 즉, 사이버폭력 8가지 하위 유형에 대해 응답자들이 어느 정도 문제행동으로 인식하는지 여부를 확인했다. 각 항목에 대해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1점)에서 “매우 문제된다”(4점)까지 4점 척도에 대해 해당하는 사항에 표시하도록 하여 개인별로 최저 8점에서 최고 32점 사이에 분포하며 최저점에 가까울수록 사이버폭력에 대해 관대하고 허용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응답자들의 사이버폭력에 대한 태도 평균은 29.53점(표준편차=4.781)이었다. 또한, 척도의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한 신뢰도 분석 결과 신뢰도지수(Cronbach's)는 0.971이었다.

4) 분석방법

본 연구는 수집된 자료의 처리와 통계분석에 SPSS 22.0 버전을 활용했다. 자녀의 디지털 이용에 대한 부모 통제, 사이버폭력 예방을 위한 학교 관여 활동, 교우관계 및 사이버폭력에 대한 태도와 청소년 사이버폭력 가해 경험과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사용된 구체적인 자료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응답자 속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등의 기술통계 분석을 사용했다. 둘째, 각 변수들이 일관된 응답을 이끌어내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신

되도 분석을 실시했다. 셋째, 사이버폭력 피해 경험 유무에 따라 관련 변수들의 차이가 발생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t-test 검증을 했다. 넷째, 상관계 분석을 통해 각 변수들 간의 관계를 확인한 후, 독립변수(부모 통제, 학교 관여, 교우관계)가 종속변수(사이버폭력 피해 경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사이버폭력 태도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했다. 마지막으로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PROCESS Macro를 통해 검증했다. 매개효과 검증시 기존에는 배런과 케니(Baron & Kenny)의 매개효과 검증법이나 Sobel test를 이용했지만 매개효과 추정에 한계를 내포하고 있어 이를 보완한 기법인 헤이스(Hayes, 2013)의 분석 방법을 사용했다. PROCESS Macro는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기반으로 매개효과 검증을 실시하여 정규성 가정에서 자유로우며, 매개효과에 대한 검정력이 가장 높은 분석 방법으로 인정받고 있다(Hayes, 2013).

4. 연구 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이 제시하는 바와 같다. 성별로는 남학생이 51.8%, 여학생이 48.2%이며, 교급별로는 초등학교 35.1%, 중학생 33.2%, 고등학교 31.8%였다. 연령은 10세 12.0%, 11세 12.0%, 13세 11.7%, 15세 11.2%, 12세 11.1%, 17세 10.9%, 16세 10.5%, 14세 10.4%, 18세 10.4% 순이었으며 평균 연령은 13.89세(sd=2.591)였다.

〈표 1〉 응답자 특성

	구분	명	비율(%)
	전체	4,958	100
성별	남자	2,658	51.8
	여자	2,390	48.2
학교급	초등학교	1,738	35.1
	중학교	1,645	33.2
	고등학교	1,575	31.8
연령	10	594	12.0
	11	593	12.0
	12	551	11.1
	13	578	11.7
	14	514	10.4
	15	553	11.2
	16	523	10.5
	17	538	10.9
	18	514	10.4

2) 사이버폭력 가해 경험 유무에 따른 부모 통제, 학교 관여, 교우관계 및 사이버폭력에 대한 태도의 차이

청소년 사이버폭력 가해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간의 관계를 확인하기 전에 먼저 [연구문제 1]과 관련하여 사이버폭력 가해 경험 관련 요인들에 대해 가해 경험 유무로 구분한 집단 간 차이를 알아보는 t-검정을 실시했다. 이는 사이버폭력 가해 경험집단과 무경험 집단의 특성을 구분하기 위함이다. 사이버폭력 가해 경험 유무에 따

른 집단 구분은 최근 1년간 사이버폭력의 하위 유형에 대해 1회 이상의 경험을 한 집단을 경험 집단으로, 이 같은 경험이 없는 집단을 무경험 집단으로 했다.

분석 결과 <표 2>와 같이 부모 통제, 학교 관여, 교우관계, 사이버폭력 태도 등의 요인과 관련하여 0.1% 통계적 유의수준에서 사이버폭력 피해 경험집단과 무경험 집단 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이버폭력 피해 경험집단이 무경험 집단에 비해 부모 통제와 학교 관여에 대한 인식이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사이버폭력 피해 경험집단이 무경험 집단에 비해 교우관계가 원만치 않고 사이버폭력에 대해서도 관대한 태도를 지닌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사이버폭력 피해 경험집단은 무경험 집단에 비해 사이버폭력 예방을 위한 부모와 학교의 관심과 보호가 덜 한 집단이며, 교우관계도 원만치 않을 뿐만 아니라, 사이버폭력에 대해서도 쉽게 용인하는 태도를 지닌 집단임을 확인할 수 있다.

<표 2> 사이버폭력 피해 경험 집단 차이 분석

구 분	사례수	부모 통제	학교 관여	교우관계	사이버폭력 태도
		M±SD	M±SD	M±SD	M±SD
사이버폭력 피해 경험 집단	469	1.026±1.029	1.829±1.173	3.034±0.599	3.567±0.568
사이버폭력 피해 무경험 집단	4,489	1.266±1.154	2.092±1.193	3.236±0.651	3.703±0.599
t		4.756**	4.549**	6.880**	4.715**

**p<.01

3) 부모 통제, 학교 관여, 교우관계, 사이버폭력에 대한 태도 및 사이버 폭력 가해 경험과의 관계

사이버폭력 가해 경험에 미치는 부모 통제, 학교 관여, 교우관계 및 사이버폭력에 대한 태도의 영향력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전에 먼저 [연구문제 2]와 관련하여 주요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했다. 피어슨 상관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표 3>과 같다.

분석 결과, 사이버폭력에 대한 태도($r=-.111$), 학교 관여($r=-.075$), 교우관계($r=-.075$), 부모 통제($r=-.040$) 순으로 가해 경험과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확인했다. 변수간 다중공선성을 확인하기 위해 사이버폭력 계수와 VIF값, Tolerance를 검토한 결과에서도 각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는 .80 이하였으며 VIF값은 모두 3 이하였고, Tolerance는 모두 .3 보다 크게 나타나 변수 간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결과적으로 사이버폭력 가해 경험과 관련해서 모든 요인들 간에 상관관계가 존재하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것으로 분석

<표 3> 상관관계 분석 결과

구 분	사이버폭력 가해 경험	사이버폭력 태도	부모 통제	학교 관여	교우관계
사이버폭력 가해 경험	1				
사이버폭력 태도	-.111**	1			
부모 통제	-.040**	.099**	1		
학교 관여	-.075**	.128**	.340**	1	
교우관계	-.075**	.227**	.104**	.148**	1

** $p<.01$

되었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사이버폭력 가해 경험이 많을수록 사이버폭력에 대해 관대한 태도를 보이며, 사이버폭력 예방을 위한 학교의 관여나 부모 통제에 대해서도 낮은 인식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이버폭력 가해 경험이 많을수록 교우관계도 원만치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4) 사이버폭력 가해 경험에 대한 사이버폭력 태도의 매개효과

본 연구에서는 독립변인인 부모 통제, 학교 관여, 교우관계와 매개변수인 사이버폭력에 대한 태도 외에 종속변인인 사이버폭력 가해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통제하기 위해 성별, 연령을 통제변수로 설정하여 살펴보았다. 변인간 영향 효과 분석과 함께, 매개효과 분석을 위해서는 배런과 케니(Baron & Kenny, 1986)가 제안한 3단계 절차에 따라 회귀분석을 실시했다. [연구문제 3]과 관련하여 1단계에서는 독립변수(부모 통제·학교 관여·교우관계, X)와 매개변수(사이버폭력 태도, M)의 관계를 살펴보고, 2단계에서는 독립변수(X)가 종속변수(사이버폭력 가해 경험, Y)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며, 마지막 3단계에서 독립변수(X)와 매개변수(M)를 동시에 포함했을 때 매개변수(M)와 종속변수(Y)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표 4>는 부모 통제, 학교 관여, 교우관계 요인과 사이버폭력에 대한 태도 그리고 사이버폭력 가해 경험과의 관계를 회귀분석한 결과다. 1단계에서 부모 통제, 학교 관여, 교우관계 요인이 사이버폭력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서는 성별과 연령을 통제한 상태에서 부모 통제(=.059), 학교 관여(=.085), 교우관계(=.181) 모두 사이버폭력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8%의 설명력을 갖고 있으며, $p < .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도 유의했다. 모형의 적합도와 관련해서는 Durbin-Watson 값이 1.921로 1~3 사이에 속해 잔차들 간

에 상관관계가 없어 회귀모형이 적합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회귀모형의 다중공선성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 VIF(공선성 통계량) 값을 확인한 결과도 각 변수에 대한 값이 10 미만이므로 다중공선성 문제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자녀의 디지털 이용에 대한 부모 통제와 학교 관여, 교우관계 등 관련 요인 모두 사이버폭력에 대한 태도의 문턱을 높이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가 자녀들의 정보통신기기 이용과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통제하거나, 학교 또는 학급 내에 사이버폭력 관련 규칙의 존재 및 사이버폭력 예방 교육 실시 등의 경우 청소년들은 사이버폭력에 대해 비관용적인 태도를 갖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우관계가 원만한 경우에도 청소년들은 사이버폭력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갖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단계에서 부모 통제, 학교 관여, 교우관계 요인이 사이버폭력 가해 경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1.8%의 설명력을 갖고 있으며 $p < .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모형의 적합도와 관련하여 Durbin-Watson 값은 1.996으로 1~3 사이에 속하므로 잔차들 간에 상관관계가 없어 회귀모형이 적합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부모 통제 정도가 높을수록 사이버폭력 가해 경험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 같은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020$, $p = .200$). 부모 통제는 사이버폭력 가해 경험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부모 통제가 사이버폭력 가해 경험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함을 알 수 있다. 반면, 학교 관여($= -.064$, $p < .001$)와 교우관계($= .045$, $p < .001$)는 청소년의 사이버폭력 가해 경험을 줄이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학교 관여가 많을수록 청소년의 사이버폭력 가해 경험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교우관계가 원만할수록 청소년의 사이버폭력 가해 경험도 줄어드는 것으로 밝혀졌다.

3단계에서 부모 통제, 학교 관여, 교우관계 요인과 사이버폭력에 대한 태도가 사이버불링 가해 경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2.4%의 설명력을 갖고 있으며 $p < .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모형의 적합도와 관련하여 Durbin-Watson 값은 1.995로 1~3 사이에 속하므로 잔차들 간에 상관관계가 없어 회귀모형이 적합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분석 결과, 사이버폭력에 대한 태도(=-.082, $p < .001$)가 사이버폭력 가해 경험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확인됐다. 즉, 사이버폭력에 대해 관대한 태도를 지닐수록 사이버폭력 가해 경험이 많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획된 행동이론에서는 특정 행동에

〈표 4〉 매개회귀분석 결과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독립변수(X)→ 매개변수(M)		독립변수(X)→ 종속변수(Y)		독립변수(X), 매개변수(M)→ 종속변수(Y)				
	비표준화 계수 (USC)	표준화 계수(SC)	비표준화 계수 (USC)	표준화 계수(SC)	비표준화 계수 (USC)	표준화 계수(SC)			
	B	SE	B	SE	B	SE			
상수	2.699	.051	9.081	.103	9.517	.129			
통제	성별	.183	.017	.153***	-.213	.033	-.091***		
	연령	.015	.003	.065***	-.017	.006	-.037**		
독립	부모통제	.031	.008	.059***	-.020	.016	-.020		
	학교관여	.043	.007	.085***	-.063	.015	-.064***		
	교우관계	.166	.013	.181***	-.082	.027	-.045**		
매개	사이버폭력 태도	-	-	-	-	-	-.161	.029	-.082***
F value		85.590		17.802		20.182			
R square		.080***		.018***		.024***			

* $p < .05$, ** $p < .01$, *** $p < .001$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특정 행동에 대한 태도를 지목했는데 사이버폭력 가해 행동과 관련해서도 사이버폭력에 대한 태도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했다.

마지막으로 [연구문제 3]과 관련하여 독립변인과의 관계에서 사이버폭력에 대한 태도가 사이버폭력 가해 경험에 미치는 매개효과가 유의한가를 확인하기 위해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을 적용했다. 부트스트래핑을 위해 재추출한 표본수는 5,000개였고, 신뢰구간은 95%로 설정했다.

구체적으로 3단계 회귀분석을 통해 확인된 종속변인에 미치는 독립변인의 영향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 유무로 구분하여 사이버폭력 가해 경험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부모 통제를 제외하고 학교 관여와 교우관계(독립변인)에 대한 사이버폭력 태도의 매개효과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학교 관여와 교우관계는 <표 5>에서와 같이 총효과(직접효과+간접효과)는 $-0.0637(t=-4.5360, p<.01)$, 직접효과는 $-0.0548(t=-3.9040, p<.01)$ 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또한, 사이버폭력에 대한 태도의 매개효과 계수의 하·상한 값은 각각 $-0.0162, -0.0039$ 로 구간 내에 0의 값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사이버폭력에 대한 태도의 매개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학교 관여 및 교우관계와 사이버폭력 가해 경험 간에 사이버폭력에 대한 태도의 부분 매개 모

<표 5> 사이버폭력에 대한 태도의 부분 매개효과 Bootstrapping 결과

변수			coeff	Boot. SE	95% Confidence interval	
독립변수	매개변수	종속변수			Boot. LLCI	Boot. ULCI
교우관계	사이버폭력	사이버폭력	-.0822	.0032	-.0162	-.0039
학교 관여	태도	가해 경험	-.0548			

형을 지지했다. 이는 학생들의 디지털 활용에 대한 학교의 관여 활동과 원만한 교우관계는 사이버폭력 태도에 대한 영향력 행사를 통해 사이버폭력 가해 경험을 줄이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도 사이버폭력 가해 경험을 억제하는 작용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다.

종합하면, 청소년들의 경우, 사이버폭력 예방을 위한 학교의 관여도가 낮고, 교우관계가 원만하지 않을수록 사이버폭력 가해 경험이 높아졌다. 특히, 청소년기는 부모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 점차 학교와 친구의 영향력이 높아지는 시기라고 알려져 있는데 사이버폭력 같은 특정 행동에 있어서도 부모보다는 학교와 친구의 영향이 더욱 큰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사이버폭력 예방프로그램을 고안할 때 학교와 친구의 개입에 더 집중할 필요성을 보여주는 결과다.

또한, 사이버폭력과 관련해서 청소년들은 사이버폭력에 대해 어떠한 태도를 지니느냐에 따라 서로 다른 경험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이버폭력에 대한 태도와 관련하여 관대한 태도를 가질수록 사이버폭력 가해 경험이 많아지는 것을 확인했을 뿐 아니라 청소년 발달과 행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학교, 친구 등의 역할을 매개하여 사이버폭력 가해 경험에 대한 이들의 영향력을 확대·강화하고 있음이 확인됐다. 이와 함께 사이버폭력에 대한 태도는 사이버폭력 가해 경험에 대해 부모 통제의 영향을 매개하지는 않았으나, 자녀의 디지털 이용에 대한 부모 통제가 사이버폭력 가해 경험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사이버폭력 태도에 대한 영향력을 통해서만 사이버폭력 가해 경험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 여기에서도 사이버폭력에 대한 태도의 중요성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사이버폭력 가해 경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사이버폭력에 대한 부정적이고 비관용적인 태도를 갖도록 하는 노력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원만한 교우관계 형성과 학교 관여 활동이 필요함을 밝힌 것은 본 연구 결과의 의의

라 할 수 있다. 다만, 사이버폭력 예방을 위한 자녀의 디지털 이용에 대한 부모 통제의 영향력은 매우 제한적임을 확인했다.

5. 결론 및 논의

사이버폭력은 은밀히 진행된다는 점에서 사안 발생 이후에야 확인되는 경우가 많다. 즉, 사이버폭력의 무경계적인 특성과 정보통신기기 및 서비스의 개인별 소유와 활용, 감시 부재 등으로 인해 제 3자에 의한 사이버폭력을 목격하거나 상황 발생시 즉각적인 개입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사이버폭력을 줄이기 위해서는 사전 예방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사이버폭력 예방을 위해서는 청소년의 가치관 형성과 행동 발달에 중요하게 작용하는 부모, 학교, 친구의 역할이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자녀의 디지털 이용에 대한 부모 통제, 사이버폭력 예방을 위한 학교 관여 활동, 교우관계, 사이버폭력에 대한 태도 등과 사이버폭력 가해 경험과의 관계를 살펴보고, 이들 요인이 사이버폭력 가해 경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 등을 분석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이버폭력 가해 경험집단과 무경험 집단 간에 부모 통제, 학교 관여, 교우관계, 사이버폭력에 대한 태도 등의 차이가 존재함을 확인했다. 무엇보다 사이버폭력 가해 경험집단은 정보통신기기 이용 통제 및 사이버폭력 예방에 대한 부모와 학교의 관심도가 낮아 무분별한 정보통신기기 이용이 가능하며, 관련 규칙도 부재한 환경에 있는 집단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교우관계도 원만하지 않고, 사이버폭력이라는 일탈 행위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등 사이버폭력 가해 경험집단은 사이버폭력 무경

험 집단에 비해 사회적으로 취약할 뿐 아니라 정서적으로도 부정적인 특성을 지닌 집단인 것으로 파악됐다.

둘째, 청소년의 가치관 형성과 행동 발달에 부모, 학교, 친구의 역할이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주장(Bronfenbrenner, 1979)은 사이버폭력과 같은 특정 행위에 대한 태도 형성에도 적용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 즉 자녀의 디지털 이용에 대한 부모 통제, 사이버폭력 예방을 위한 학교 관여 활동, 교우관계 등은 모두 사이버폭력에 대한 태도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이버폭력 예방에 대한 부모와 학교의 관심이 낮아 자녀에 대한 디지털 통제 정도와 학생들을 위한 사이버폭력 예방 활동이 적은 경우 사이버폭력에 대해 관대하고 허용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밝혀진 것이다. 원만하지 않은 교우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청소년의 경우에도 사이버폭력을 긍정적으로 보는 태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부모 통제, 학교 관여, 교우관계 중에 학교 관여, 교우관계 등과 사이버폭력에 대한 태도는 직접적으로 사이버폭력 가해 경험을 억제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즉, 원만한 교우관계 형성과 함께 학교·급내 정보통신기기 이용 규칙 마련, 사이버폭력 예방 교육 등과 같은 학교 관여 활동이 사이버폭력 가해 경험을 억제하는 요인인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사이버폭력 가해 경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사이버폭력에 대해 비관용적이고 엄격한 태도를 형성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원만한 교우관계가 형성될 수 있는 학교 분위기 조성 및 사이버폭력에 대한 엄격한 규칙 제정, 예방 교육 등과 같은 학교의 다양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필요가 있다.

반면, 사이버폭력 가해에 대한 부모 통제 억제 효과를 증명한 기존 연구(예를 들어, Ho et al., 2017; Wright, 2017)들과는 달리 본 연구에서는 부모 통제 역할이 사이버폭력 가해 경험과 관련하여 다소 상이하게 나타났다. 사이버폭력 가해 경험과 관련해서 부모 통제는 사이

버폭력에 대한 태도를 통한 간접효과만을 확인한 것이다. 앞서 t-검정과 상관분석 결과에서 나타난 사이버폭력 가해 경험과 부모 통제와의 관계로 볼 때, 사이버폭력 가해 경험 정도에 따라 부모의 통제 정도가 다를 수도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즉, 부모 통제는 사이버폭력 가해 경험으로 인한 후행적 요소이자 후속 행위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부모 통제가 자녀의 사이버폭력에 대한 비관용적인 태도 형성에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어 자녀에 대한 부모의 디지털 이용 통제시 사이버폭력 예방이라는 목적을 명확히 밝히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서는 후속 연구를 통한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사이버폭력에 대한 태도는 사이버폭력 가해 경험과 관련해서 학교 관여 활동, 교우관계 등을 매개하고, 부모 통제의 영향력을 전달하는 역할도 하고 있어 이들의 효과를 강화하는 역할을 하는 매우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했다. 즉, 특정 행위에 대한 태도는 특정 행동을 결정한다는 기존 주장에 근거하여 사이버폭력 가해 경험이라는 특정 행동에 대해 사이버폭력 태도가 중요하게 작용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사이버폭력에 대한 태도는 독립적으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부모 통제, 학교 관여, 교우관계 등 다양한 요인들에 의한 영향의 결과로 사이버폭력에 대한 비관용적이고 엄격한 태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이들 요인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노력도 동시에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청소년의 사이버폭력 가해 경험을 줄이기 위한 사이버폭력 예방 프로그램에는 다음과 같은 고려가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먼저, 학교·급내에서 수업중 스마트폰 사용 규제나 엄격한 사이버폭력 관련 규칙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사이버폭력 예방교육도 보다 강화해야 한다. 아울러 교사의 승인은 학생들의 학업과 정서발달에 상당한 영향을 준다는 기존 연구(Biggs et al.,

2008; Forman et al, 2009; LaRusso et al, 2007)에 근거하여 사이버폭력에 대한 선생님의 적극적인 대화와 관여 노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또한, 교우관계가 원만치 않을 경우 교우관계에서 발생하는 긴장을 해소하기 위해 사이버폭력을 행사할 우려가 있어 원만한 교우관계 형성을 위한 학교내 프로그램 시행이 필요하다. 교우관계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들을 조기에 발견하여 관계 개선 프로그램을 발동할 경우 사이버폭력을 줄이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이버폭력 예방을 위한 부모의 역할과 관련해서는 자녀의 정보통신기기 이용과 관련하여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통제보다는 목적과 이유를 명확히 밝혀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 내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서는 자녀의 디지털 이용과 관련한 올바른 대화법 등의 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영(Young, 2009)은 자녀의 온라인 활동과 관련해서 부모 통제 프로그램 설치보다는 의사소통과 같은 부모 활동이 청소년 그룹에 매우 적당하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요인들과 함께 사이버폭력 가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사이버폭력을 부정적으로 인식하여 비관용적이고 엄격한 태도를 취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앞서 제시된 요인들(부모 통제, 학교 관여, 교우관계)을 통해 일부 사이버폭력 태도 형성에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할 수 있지만, 독립적으로도 사이버폭력에 대한 비관용적 태도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 마련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사이버폭력이 왜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타인에게 어떤 피해를 일으키는지, 자신에게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등 사이버폭력을 객관적이고 엄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사이버폭력 예방 프로그램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사이버폭력 가해 경험과 관련해서 다양한 변인 간의 관

계를 복잡적이고 체계적으로 분석했다. 특히, 사이버폭력에 대한 태도의 중요성을 확인했고, 사이버폭력 예방을 위한 부모 통제 노력, 학교 관여 활동, 교우관계 등의 효과도 살펴볼 수 있는 기회였다. 반면, 이러한 학문적, 실천적 기여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몇 가지 한계를 갖고 있다. 본 연구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의 가치관 형성과 행동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체계적으로 분류한 생태체계이론에 따르면, 부모, 학교, 교우관계 외에도, 지역사회나 문화, 종교 등과 같은 외부 체계의 영향력도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그중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부모, 학교, 교우관계만을 살펴보았다. 후속 연구를 통해 사이버폭력에 대한 생태체계이론에서 제시된 다양한 변인들의 역할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이차 자료를 활용한 분석 결과로 변수 사용에 대해 제한적이라는 한계를 가진다. 향후 연구목적에 충실하고 엄격한 자료의 구축과 함께 다양한 변수에 기반한 모형 설정을 통해 보다 발전적인 후속 연구들이 지속되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김경은 · 윤혜미 (2012). 청소년의 폭력 피해 경험, 폭력 용인 태도와 사이버폭력 가해 행동의 관련성. <한국아동복지학>, 39, 213-244.
- 김봉섭 (2021). 성인의 사이버폭력 가해 경험에 대한 영향 요인 연구: 사이버폭력에 대한 태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정보화정책>, 제28권 2호, 57-80.
- 박혜숙 · 김양곤 (2014). 한국 청소년의 정서, 가정, 또래 및 학교 환경 특성이 비행에 미치는 영향 탐색.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제28권 2호, 119-140.
- 유안진 · 한미현 (1996). 아동의 스트레스 및 사회적지지 지각의 행동 문제. <아동학회지>, 제17권 1호, 173-188
- 이고은 · 정세훈 (2014). 청소년의 사이버 폭력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계획된 행동이론과 사회학습이론을 적용하여.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제31권 2호, 129-162.
- 이성식 (2005). 사이버공간의 익명성이 청소년 언어폭력에 미치는 영향: 기존 요인들과의 비교. <한국청소년연구>, 제16권 1호, 77-108.
- 이성식 (2007). 청소년 사이버비행의 동기, 기회와 통제요인을 통한 모형의 구성과 검증. <정보화정책>, 제14권 3호, 3-15.
- 이성식 · 전신현 (2020). <사이버사회심리학>. 서울: 집문당
- 이승출 · 이성규 · 최영진 (2021). 부모의 부정적 양육 태도와 청소년의 사이버불링 피해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에 관한 연구. <청소년문화포럼>, 통권 65호, 93-128.
- 이승현 · 강지현 · 이원상 (2015). <청소년 사이버폭력의 유형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이지연·박동필 (2015). 부모의 과보호가 사이버폭력 가해경험에 미치는 효과: 특성분노와 공격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상담연구>, 제23권 1호, 55-76.
- 이지혜·강민주 (2019). 부모 자녀관계의 질과 부모의 통제적 양육행동이 중학생의 사이버불링 가해행동에 미치는 영향: 사이버불링 피해 경험의 매개효과. <아동학회지>, 제40권 1호, 69-83.
- 전신현·이성식 (2010). 청소년의 휴대전화를 이용한 사이버 집단 괴롭힘 현상의 원인 모색. <청소년학연구>, 제17권 11호, 159-181.
- 한국정보화진흥원 (2016). <사이버폭력 유형화를 위한 조사 연구 보고서>.
- 한국정보화진흥원 (2020). <2020 인터넷이용 실태조사>.
- 한국정보화진흥원 (2020). <2020 사이버폭력 실태조사>.
- 황지영 (2008). <인터넷 게시판상의 언어폭력의 설명요인에 관한 경험연구>. 숭실대학교 대학원 정보사회학과 석사학위 청구논문.
- Antoniadou, N., and Kokkinos, C. M. (2015). Cyber and school bullying: Same or different phenomena?. *Aggression and Violent Behavior, 25(Part B)*, 363-372.
- Aoyama, I., Utsumi, S. and Hasegawa, M. (2012). Cyberbullying in Japan: Cases, government reports, adolescent relational aggression, and parental monitoring roles. In Q. Li, D. Cross, & P. K. Smith (Eds.), *Cyberbullying in the global playground: Research from international perspectives*, 183-201. West Sussex: Wiley-Blackwell.
- Bandura, A. (1977). Self-efficacy: 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al change. *Psychological Review, 84(2)*, 191-215.
- Bandura, A., Barbaranelli, C., Caprara, G., and Pastorelli, C. (1996). Mechanisms of moral disengagement in the exercise of moral agenc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1*, 364-374.

- Battistich, V., Solomon, D., Kim, Dong-il, and Watson, M. (1995). Schools as communities, poverty levels of student populations, and students' attitudes, motives, and performance: A multilevel analysis. *American Educational Research Journal*, 32(3), 627-658.
- Battistich, V., Solomon, D., Watson, M., and Schaps, E. (1997). Caring School Communities. *Educational Psychologist*, 32(3), 137-151.
- Biggs, B. K., Vernberg, E. M., Twemlow, S. W., Fonagy, P., and Dill, E. J. (2008). Teacher adherence and its relations to teacher attitudes and student outcomes in an elementary school-based violence prevention program. *School Psychology Review*, 37(4), 533-549.
- Bronfenbrenner, U. (1979). *The Ecology of Human Development: Experiments by Nature and Design*.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Buelga, Sofía, Belén Martínez-Ferrer, and María-Jesús Cava. (2017). Differences in family climate and family communication among cyberbullies, cybervictims, and cyber bully-victims in adolescents. *Computers in Human Behavior*, 76, 164-173.
- Buelga, S., MartínezFerrer, B., and Musitu, G. (2016). Family relationships and cyberbullying. In R. Navarro, S. Yubero, & E. Larrañaga (Eds.), *Cyberbullying across the globe: Gender, family and mental health*, 99-114. Basel, CH: Springer International Publishing.
- Cernkovich, S. A. and Giordano, P. C. (1992). School bonding, race, and delinquency. *Criminology*, 30(2), 261-291.
- Cross, D., Barnes, A., and reducing cyberbullying behaviours, *Aggression and Violent Behavior*, 23, 109-117.
- Durant, R. H., Trieber F., Goodman, E., and Woods, E. R. (1996). Intentions to Use Violence Among Young Adolescents, *Pediatrics*, 98(6), 1104-1108.

- Eagly, A. H., and Chaiken, S. (1993). *The psychology of attitudes*. Harcourt Brace Jovanovich College Publishers.
- Farrington, D. P., and Ttofi, M. M. (2009). School-based programs to reduce bullying and victimization. *Systematic Review for: The Campbell Collaboration Crime and Justice Group*.
- Fisher, B. W., Gardella, J. H., and Teurbe-Tolon, A. R. (2016). Peer cybervictimization among adolescents and the associated internalizing and externalizing problems: A meta analysis. *Journal of Youth Adolescence*, 45, 1727-1743.
- Forman, S. G., Olin, S. S., Hoagwood, K. E., Crowe, M., and Saka, N. (2009). Evidence-based intervention in schools: Developers' views of implementation barriers and facilitators. *School Mental Health: A Multidisciplinary Research and Practice Journal*, 1(1), 26-36.
- Görzig, A. and Machackova, H. (2015). Cyberbullying from a socio-ecological perspective: A contemporary synthesis of findings from EU Kids Online. *Media@LSE Working Paper #36*
- Hayes, F. (2013). *Introduction to Mediation, Moderation, and Conditional Process Analysis*. NY: The Guilford Press. 이형권 역(2015). 『Process macro를 이용한 매개분석 조절분석 및 조절된 매개분석』. 경기: 신영사.
- Heinemann, P. P. (1969). *Apertheid*. *Liberal Debatt*, No.2, 3-14.
- Hinduja, S., & Patchin, J. W. (2007). Offline consequences of online victimization: School violence and delinquency. *Journal of School Violence*, 6(3), 89-112.
- Hinduja, S., and Patchin, J. W. (2010). Bullying, cyberbullying, and suicide. *Archives of Suicide Research*, 14, 206-221.
- Hinduja, S. and Patchin, J. W. (2012). *School Climate 2.0: Preventing Cyberbullying and Sexting One Classroom at a Time*. Thousand Oaks, CA:

Sage.

- Ho, Shirley S., Liang Chen, and Angelica P. Y. Ng. (2017). Comparing cyberbullying perpetration on social media between primary and secondary school students. *Computers & Education*, 109, 74-84.
- Juvonen, J., and Gross, E. F. (2008). Extending the school grounds? - Bullying experiences in cyberspace. *Journal of School Health*, 78, 496-505.
- Jisha P. R. (2020). Cyberbullying in children: A school based analysis. *IJCIRAS. Vol.2, Issue.11.*, 20~24.
- Kaplan, K. (2014). Teens taunted by bullies are more likely to consider, attempt suicide. *LA Times(March 10)*.
- Katzer, C., Fetchenhauer, D. and Belschak, F. (2009). Cyberbullying in Chatrooms- Who are the victims? *Journal of Media Psychology*, 21(1), 25-36.
- Kokkinos, C. M., Antoniadou, N., Asdre, A., and Voulgaridou, K. (2016). Parenting and internet behavior predictors of cyberebullying and cyberevictimization among preadolescents. *Deviant Behavior*, 37(4), 439-455.
- Kowalski, R. M., Limber, S. P., and Agatston, P. W. (2008). *Cyberbullying: Bullying in the digital age*. MA: Wiley-Blackwell
- Kowalski, R. M., Giumetti, G. W., Schroeder, A. N., and Lattanner, M. R. (2014). Bullying in the digital age: A critical review and metaanalysis of cyberbullying research among youth. *Psychological Bulletin*, 140(4), 1073-1137.
- LaRusso, M. D., Romer, D., and Selman, R. L. (2007). Teachers as builders of respectful school climates: Implications for adolescent drug use norms and depressive symptoms in high school.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37(4), 386-398.

- Ma, C. Q., and Huebner, E. S. (2008). Attachment relationships and adolescents' life satisfaction: Some relationships matter more to girls than boys. *Psychology in the Schools, 45*(2), 177-190.
- Mesch G. (2009). Parental Mediation, Online Activities, and Cyberbullying. *Cyberpsychology & behavior: the impact of the Internet, multimedia and virtual reality on behavior and society, 12*(4), 387-393.
- Meter, D. J., and Bauman, S. (2018). Moral Disengagement About Cyberbullying and Parental Monitoring: Effects on Traditional Bullying and Victimization via Cyberbullying Involvement.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38*(3), 303-326.
- Mishna, F., Khoury-Kassabri, M., Gadalla, T., & Daciuk, J. (2012), Risk factors for involvement in cyber bullying: Victims, bullies and bully-victims.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34*, 63-70.
- Moor, Robert (2011). *Cybercrime: Investigating high-technology computer crime*. Anderson Publishing.
- Olweus, D. (1973). *Personality and aggression*. I J. K. Cole, & D.D. Jensen(Eds.), Nebraska Symposium on Motivation 1972. Lincoln: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 Patchin. J. W. and Hinduja, S. (2010). "Cyberbullying and Self-Esteem". *Journal of School Health, 80*(12), 614-621.
- Raphael Cohen-Almagor (2018). Social responsibility on the Internet: Addressing the challenge of cyberbullying. *Aggression and Violent Behavior, Vol 39*, 42-52.
- Resnick, H. S., Kilpatrick, D. G., Dansky, B. S., Saunders, B. E., and Best, C. L. (1993). Prevalence of civilian trauma and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in a representative national sample of women.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1*, 984-991.

- Samara, M., Burbidge, V., El Asam, A., Foody, M., Smith P. K. and Moris, H. (2017). Bullying and Cyberbullying: Their Legal Status and Use in Psychological Assessment, *Int. J. Environ. Res. Public Health*, 14, 1449.
- Shariff, Shahreen. (2009). *Confronting cyber bullying*.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lonje, R., Smith, P. K., & Frisen, A. (2013). The nature of cyberbullying, and strategies for prevention. *Computers in Human Behavior*, 29(1), 26-32.
- Smith, P. K., Mahdavi, J, Carvalho, M., Fisher, S., Russell, S. N., and Tippett, N. (2008). Cyberbullying: Its nature and impact in secondary school pupils.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49, 376-385.
- Smith, P. K., Kupferberg, A., Mora-Merchan, J. A., Samara, M., Bosley, S., and Osborn, R. (2012). A content analysis of school anti-bullying policies: A follow-up after six years. *Educational Psychology in Practice*, 28, 47-70.
- Tokunaga R. (2010). Following you home from school: A critical review and synthesis of research on cyberbullying victimization. *Computer in human Behavior*, 26, 277-287.
- Young, K. S. (2009). Understanding Online Gaming Addiction and Treatment Issues for Adolescents. *The American Journal of Family Therapy*, 37(5), 355-372.
- Vandebosch, H., Poels, K., and Deboutte, G. (2014). Schools and CYberbullying: Problem Perception, Current Actions and Future Needs. *International Journal of Cyber Society and Education*, 7(1), 29-48.
- Warr, M. (1993). Parents, peers, and delinquency. *Social Forces*, 72(1), 247-264.
- Willard, N. (2007). "The authority and responsibility of school officials in responding to cyberbullying". *Journal of Adolescent Health*, 41, 64-65,

- Williams, K. R., and Guerra, N. G. (2007). Prevalence and predictors of Internet bullying. *Journal of Adolescent Health, 41*(6), 14-21.
- Wright, Michelle F. (2017). Parental mediation, cyberbullying, and cybertrolling: The role of gender. *Computers in Human Behavior, 71*, 189-95.
- Ybarra, M. L., and Mitchell, K. J. (2004). Youth engaging in online harassment: Associations with caregiver-child relationships, Internet use, and personal characteristics. *Journal of Adolescence, 27*(3), 319-336.
- Ybarra, M. L., Alexander, C., and Mitchell, K. J. (2005). Depressive symptomatology, youth Internet use, and online interactions: A national survey. *Journal of Adolescent Health, 36*(1), 9-18.

최초 투고일: 2022년 01월 10일

논문 수정일: 2022년 07월 05일

게재 확정일: 2022년 07월 16일

**A Study on Parental Control, School Involvement,
and Friendship that Influence Adolescent Cyberbullying
- focusing on the mediation effect
on the attitude to cyberbullying**

Kim, Bong seob

(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 Research Fellow)

This study aimed to identify the influence of parent, school, and friend on cyberbullying, which is recognized as ‘social death’ among adolescents. Based on the claim that social control group such as parent, school, and friend had a great influence on online youth behavior, this was intended to investigate whether these groups actually exercise their influence in relations with cyberbullying. This was to provide basic data for effective cyberbullying prevention and countermeasure. To that end, the second analysis was conducted using the 2020 results of the annual Cyber Violence Survey. Based on school statistics at the Korea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a total of 4,958 students from fourth graders to high school students in 17 cities and provinces nationwide were analyzed through stratified class extraction by class, region, and grade.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confirmed that if adolescents have low school involvement to prevent cyberbullying and a unfriendly relations with friend, their experience of cyberbullying increases. On the other hand, it was found that the digital

control of parents did not directly affect the experience of cyberbullying. Finally, the attitude to cyberbullying was identified as an important factor in expanding and strengthening their influence on cyberbullying by mediating parental control, school involvement, and friendship. According to these results, it was revealed that cyberbullying prevention programs should include measures to foster negative and pessimistic attitudes toward cyberbullying as well as intervention measures for school and friend.

Key words : adolescent, cyberbullying, parental control, school involvement, friendship, the attitude to cyberbullying